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현재분사의 여러가지 형태에 관한 고찰

이 태 윤
(방언학, 중남미스페인어학)

1. 머리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본토 스페인어와는 달리 중남미스페인어의 구어체는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음성음운론의 변이현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전되었으나 형태통사적 고찰로는 아직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러가지 형태통사적 변이현상들 중에 본고는 중남미에서 각기 지역적으로 특이하게 사용되는 현재분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남미스페인어의 구어체에 있어서 현재분사의 변이현상은 크게 3가지 현상으로 나뉘는데, 16세기 서어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의고주의(arcaísmo) 현상과 지역방언의 영향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변이된 지역적현상(regionalismo) 그리고 인디오 토착어에 의한 영향으로 변이된 토어주의(indigenismo) 현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 중에 토어주의의 경우에는 잉카(Inca)어에 속하는 께추야(quechua)언어권 지

역이었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스페인어 사용국가들에서 현재분사의 남용과 변이현상이 다른 토착어권(나우아틀, 마야, 칩챠, 아라우까노, 과라니 등)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발생됨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에콰도르의 께추아어권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현재분사의 이질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까사(Icaza)의 소설 '터밭(huasipungo)'에서 나타나는 현재분사의 변이적 표현들을 소개해본다.

Ve pes Parecen pishquitos cuando *quidando* muertos *agarrando* di rama.
[= Ve pues Parecen pajaritos cuando quedan muertosa agarrados de una rama.]
(Icaza: Huasipungo, p.59)

Aura ca yu ca. Pubre, pubre Di dunde para *sacandu*.
[= Ahora yuca, pobre, pobre¿De dónde he de sacar?]
(íd., ib., p.73)

¿Por qué? contestó otro. Qui mal *cometiendo*?
[= ¿Por qué? contestó otro. -¿Que mal hemos cometido?]
(íd., ib., p.78)

Esperarís nu más. Ujalá taita Dios *ayudando*.
[= Espera no más. Ojalá el padre Dios ayude.]
(íd., ib., p.98)

¿Qué *duliendo*?
[= ¿Qué te duele?]
(íd., ib., p.102)

Bueno pes, taiticú. Voy a buscar plata. Ujalá tan *encontrando*.
[= Bueno pues, Padre. Voy a buscar el dinero. Ojalá la encuentre.]
(íd. Ib., p.111)

규범문법이 지정하는 현재분사의 용법 외에도 현재 중남미 전지역 혹은 일부지역이나 특정지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오용되어 나타나는 데에는 스페인어 고어체의 영향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으나 중남미스페인어에 미친 토착어에 의한 토어주의의 중요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언어들이 상호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언

어 속성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는 우선 16세기 께추아 언어권에 스페인어가 보급될 당시에 존재했던 토착어 문법서들을 고찰하고 각 방언의 현대 문법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께추아언어권외에 다른 토착언어권에도 동류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 싶다.

2. 일반적인 중남미스페인어의 현재분사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스페인어에는 규범문법에서 정하는 현재분사의 사용법과는 차이를 보이는 이질현상들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을 빌어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현재분사의 변이현상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일반적인 동사표현을 'estar + 현재분사' 형식으로 대체하는 현상:
Está saliendo; *estará presentándose*; va a *estar presentándose*: *se estuvo presentándose.*
[= Sale; se presentará; va a presentarse; se presentó, se ha presentado.]

2) 'Ir'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ir + yendo' 형식:
¿Cómo le *va yendo*?; Se *fue yendo se van yendo.*

3) 'Aún' 혹은 'todavía'의 의미로 사용되는 'estar + 현재분사' 형식:
Estoy teniendo.
[= *Todavía* tengo.]

4) 'Acabar de + 원형동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ir + 현재분사' 형식:
Voy llegando; *Voy acabando.*
[= *Acabo de* llegar; Estoy *a punto de* acabar.]

5) 부정부사 'no'와 함께 쓰는, 역설적 표현의 'no estar + 현재분사' 형식:
Ellos son los que *no están viendo* la realidad.

6) 시제부사 'ya'와 함께 표현되는 'ya estar + 현재분사' 형식:
Ya está saliendo.

7) 'Ir'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ya ir + 현재분사' 형식:
Ya te vas largando.

8) 부사 'mismo'를 동반하는 'ya mismo estar + 현재분사' 형식:
Ya mismo les *estás escribiendo.*

9) 'Ser'동사의 현재분사형 'siendo'와 함께 표현되는 'estar + siendo + 과거분사' 형식:
El puerto *está siendo* bombardeado.
[= El puerto está bombardeado; el puerto es bombardeado.]

10) 'Ser'동사와 함께 현재분사형 'siendo'를 사용하는 'ser + siendo + 과거분사' 형식:
Las obras *fueron siendo* llamadas sucesivamente.
[= Las obras fueron llamadas sucesivamente.]

11) 과거분사형과 현재분사형이 어울려 사용되는 현상:
Después de tú *ido* en yo *llegando.*

12) 축소접미사와 함께 사용되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Cómo estás *Pasandito*? -*Pasadito.*

13) 정중한 명령형으로 표현되는 '보조동사 dar + 현재분사' 형식:
Dame llevando; dame escribiendo; dame leyendo.
[= Llévamelo; escribe; leéme.]

14) 시제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보조동사 dar + 현재분사' 형식:

Pedro me *dió componiendo* mi reloj.
[= Pedro compuso mi reloj.]

15) 명령형으로서의 '보조동사 ir + 현재분사' 형식:

Vete cerrando las puertas.
[= Cierra las puertas.]

16)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보조동사 dejar + 현재분사' 형식:

Antes de cenar, *dejarásme apagando* el fuego.
[= Antes de cenar, apaga el fuego.]

17)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보조동사 poner + 현재분사' 형식:

El *puso rompiendo* la olla.
[= El rompió la olla.]

18) 보조동사로서의 'botar + 현재분사' 형식:

Les *botan avisando* a los amigos para que no les dejen torear.
[= Les avisan a los amigos para que no les dejen torear.]

19) 행위의 완료를 알리기 위한 'venir + 현재분사' 형식:

Vengo comiendo.
[= Vengo después de comer; Comí antes de venir.]

20) 간접화법으로 이용되는 'mandar + 현재분사' 형식:

Me *mandó sacando* mi patrón.
[= Me despidió mi patrón.]

21) 습관적인 현재분사 'diciendo'의 남용현상:

Diciendo me ha dicho.

22) 'Por qué' 혹은 'con qué razón'의 의미로 표현되는 '¿qué

diciendo?' 혹은 '¿qué haciendo?':

¿Qué diciendo vas a salir tan elegante?
¿Qué haciendo veniste?

23) 습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siempre + 현재분사' 형식

¡*Siempre loqueando*!

24) 현재분사의 반복현상:

Irás con cuidado, *viendo viendo.*

3. 스페인어와 께추아어의 현재분사

일반적으로 께추아어의 현재분사는 근본적으로 스페인어의 현재분사와는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다만 공통적인 면이 있다면 동사의 어간에 접목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먼저 스페인어의 형태는 동사의 어미변형으로 이루어지며 께추아어의 경우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shpa' 혹은 '-spa'의 접사를 사용하는데, 이 접사는 조사가 아닌 명사로서 취급되며 동사의 어간에 접하여 사용되나 단 홀로 사용될 경우에는 스페인어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ando'와 '-iendo'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께추아어는 다양한 기능에 맞추어 각 격마다 다른 접사가 사용된다. 기능 면에서 스페인어의 현재분사의 기능은 크게 4가지(1. 부사적 용법 2. 주격 용법 3. 목적격용법 4. 독립구 안에서 용법)로 분류되지만 16세기 스페인어의 보급 당시에 출간된 Domingo de Santo Tomás(1560)의 께추아문법서[1]는 께추아어의 현재분사를 크게 탈격현재

1) Fray Domingo de Santo Tomás (1560), *Grammatica o Arte de la lengua generales de los Indios de los Reynos del Peru*, Valladolid, Proyecto Educacin Bilingüe Intercultural, Quito, Editora Nacional, 1992.

분사(gerundio de ablativo)와 목적격현재분사(gerundio de acusativo)의 2종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 후 Diego González(1607)의 문법서[2]와 Alonso de Huerta(1616)의 문법서[3] 역시 탈격으로 사용되는 현재분사의 접사를 '-spa', 목적격현재분사를 '-(ngay)pac'으로 설명했고, 에콰도르 께추아어의 경우에도 Julio Paris(1892)의 문법서[4]는 '-shpa', '-cpi', '-ngapac', 'ngaraicu'로 분류했으며 현재분사 'shpa'는 주어가 행하는 본동사를 지원하고, '-cpi'는 주어가 행하는 본동사가 아닌 본동사에 속하여 행하는 종속동사를, 그리고 '-ngapac'와 '-ngaraicu' 역시 본동사를 언급한다고 기록했다.

> La forma en *shpa* se emplea ordinariamente cuando el sujeto de la acción de dicho gerundio es el mismo que el del verbo principal. (p.35)
>
> La forma en *cpi* se usa cuando el sujeto de la acción que expresa es otro que el del verbo principal. (p.36)
>
> Las formas *ngapac, ngaraicu,* del gerundio deben referirse al sujeto del verbo principal. (p.36)

실제로 께추아어의 현재분사를 서로 다른 문화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비교하여 적합하게 대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므로 비교적 공통성을 지니는 라틴어의 현재분사와 비교하여 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현재분사의 종류를 열거하였다는 점이 께추아어 고전문법서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 예로, 최초로 께추아문법서 'Grammatica o arte de la lengua

---

2) Diego González Holgun (1607), *Gramática y Arte lengva general de todo el Peru, llamada lengua Qquichua, o lengua del Inca*, Cabildo, Vaduz-Georgetown, 1975.

3) Alonso de Huerta (1616), *Arte de la lengua qvechua general de los Yndios de este Reynos del Piru*, Lima, Proyecto Educacin Bilingües Intercultural, Quito, Editora Nacional, 1993.

4) Julio Paris (1892), *Gramática de la lengua quichua actualmente en uso entre los indgenas del Ecuador*, Quito, Proyecto Educacin Bilingües, Intercultural, Editora Nacional, 1993.

general de los Indios de los Reynos del Peru'를 세상에 소개한 fray Domingo de Santo Tomás (1560)는 탈격현재분사와 목적격현재분사를 라틴어와 비교하여 설명했는데, 탈격현재분사는 라틴어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지니는데 주격을 지원하는 동위격으로서 일인칭 단수명사 뿐만 아니라 삼인칭 명사 단복수 모든 형에 적용되며 이는 라틴어의 탈격 독립구에서 사용하는 현재분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으며, 목적격현재분사의 경우에도 현재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탈격현재분사와 같이 엄격히 규칙적인 변형을 하며 라틴어의 경우처럼 단복수 상관없이 모든 인칭에 적용된다고 서술했다.

> Acerca del gerundio de ablativo es de notar una cosa particular en esta lengua, que no se halla en la latina, y es, que tiene por aposición, el nominativo ante si, no solo en una persona, ni en un número, sino en todas tres personas y en ambos números singular y plural, y lo que en la latina se hace por ablativo absoluto, en esta se hace por este gerundio. (p.89)
>
> Acerca del gerundio de acusativo, es de notar que muchas veces en esta lengua se toma con fuerza de gerundio y guarda las reglas del, y es el arriba dicho en la conjugación y sirve a todas tres personas en ambos números indiferentemente quedandose invariable como en la lengua latina. (p.90)

위에서 소개한 인용문의 탈격현재분사와 관련하여 Santo Tomás (1560, p.39)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한다.

> Siendo yo bueno. [= ñoca alli ca-spa.]
> Siendo tú bueno. [= cam alli ca-spa.]
> Siendo aquel bueno. [= pay alli ca-spa.]
> Siendo nosotros buenos. [= ñocanchic alli ca-spa.]

(ñoca: yo, alli: bueno, ca : estar 혹은 ser, cam: tú, pay: él 혹은 aquel, ñocanchic: nosotros)

3. 1. '연사동사(sum) + 현재분사'

위에서 살펴본 인용문의 예문들과 같이 라틴어의 'sum'동사에서 유래한 연사동사(copulativo) 'estar', 'ser' 동사에 해당하는 께추아어의 'ca-y'동사는 현재분사 접사 '-spa'와 함께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께추아문법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Santo Tomás의 문법서 (1560, pp.89-92) 역시 께추아어의 'ca-spa'를 설명하기 위하여 'sum' 동사를 기준으로 라틴어와 비교하였다. 실제로 'ca-spa'를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서어의 'estar + 현재분사' 혹은 'ser + 현재분사'로 해석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재분사의 형식은 1)의 예문과 같이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일반적 동사표현을 'estar + 현재분사' (está saliendo = sale; estarás presentándose = se presentará)[5] 형식으로 대체하는 현상들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Me *estoy yendo* mañana.
[= Me *iré* mañana.]
Estoy llegando a las seis.
[= *Llegaré* a las seis.]
Tú no más *estás sabiendo* las penas que estoy pasando.
[= Solamente tú *sabes* las penas que estoy pasando.]
Ya no voy a *está recogiendo* mis trapos.
[= Ya no voy a *recoger* mis trapos.]
Por pura chiripa *había estado habiendo* todavía este vasito.
[= Por pura chiripa *había* todavía este vasito.]
Ah, *viniendo ha estado* mismo el Inspector.
[= Ah, *vino* mismo el Inspector.]
Déjate de *estar molestando.*
[= Déjate de *molestar.*]

이러한 표현은 진행의 연속행위를 연상하기 위한 심리적 표현으로 중

5) Mara Vaquero Ramrez, *El español de Amrica II. Morfosintaxis y lxico*, Madrid, Arco Libro, 1996, p.30.

남미 전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16세기 스페인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고주의(arcaísmo)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일부학설에서는 영문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한편으로는 각 지방의 토착어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암시되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께추아어에 있어서 현재분사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스페인어의 현재분사와의 차이점을 들자면, 스페인어는 시간성에 중요성을 두는 반면 께추아어는 시간성보다는 심리적 행위성이나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Catta(1987)는 그의 문법서[6]에서 께추아어의 현재분사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께추아어에 있어서 시제의 개념은 시간적 흐름보다는 심리적 흐름을 더 많이 강조한다고 서술한다.

> ···el quechua la noción de tiempo es más psicológica que cronológica: frecuentemente encontraremos un gerundio SHPA para indicar una acción del mismo sujeto realizada inmediatamente antes de la acción principal lo que aparece como 'temporal' en castellano significará una 'manera' en quechua. (p.171)

중남미 안데스 지방의 스페인어권에서 나타나는 변이현상은 불충분한 심리적 연속행위를 보완하려는 께추야 현재분사의 속성과 예 스페인어의 상호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간접적 영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ser'나 'estar'동사 뿐만 아니라 일반동사인 'ir' 혹은 'venir'동사 따위와 함께 'ir'의 현재분사형 'yendo'를 동반하여 진행을 강조하는 현상으로, 2)의 예문인 'Cómo le va yendo?; Se fue yendose van yendo' 등의 표현도 의고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이런 개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아직 결말짓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연상으로 3)의 예문과 같이 'estoy teniendo' 경우처럼 'aún tengo' 혹은 'todavía

6) P. Javier Catta Quelen, *Gramática del quichua ecuatoriano*, Quito, Abya-Yala, 1987.

tengo'의 의미를 연상케하는 'estar + 현재분사' 형식과도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시간적 중요성보다는 심리적 행위방법을 중시하는 것으로 4)의 예문인 'Voy llegando', 'Voy acabando' 등의 표현을 Lope Blanch[7] (1964)는 멕시코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적인 현상으로 완료되기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완료형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acabo de llegar', 'estoy a punto de acabar'의 의미로 결국 중남미스페인어는 물리적인 현재분사의 표현방법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현재분사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현재분사는 명백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Luna[8] (1975)가 조사한 5)의 예문처럼 'estar + 현재분사'에 부정부사 'no'를 추가한 부정문 형식의 표현들이다.

> Ellos son los que *no están viendo* la realidad.
> No, yo *no te hablando* de dinero.
> Que esa inquietud de la juventud lleve una dirección; (que) *no se está desperdiciando.*

예를 들어 'No te estoy riñendo, es que me molestan estas escenitas de celos'의 문장에서와 같이 항변하고자 하는 사실을 'no estar + 현재분사' 형식을 빌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Fernández[9] (1960)는 스페인방언의 영향(regionalismo)도 인정하지만 영문법 'to be

---

7) Juan M. Lope Blanch, . "Estado actual del español en Mxico",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Toma I. Madrid, Oficina Internacional de Informacin y Observacin del Español, 1964, p.87.

8) Elizabeth Luna Traill, "Perfrasis de gerundio en el habla culta de la ciudad de Mxico", *Actas del IV Congreso de ALFAL*, Universidad Nacional Mayor San Marcos, Lima, 1975, p.404.

9) Salvador Fernández, "Algo sobre la frmula *estar + gerundio*", *Estudia Philolgica*, Madiri, 1960, p.513.

+ ~ing' 형식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은 스페인어의 경우와 같이 아주 드물게 께추아언어권에서도 나타나는데 께추아어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판단하기는 희박하며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의적인 현상으로 아스떼까(azteca)언어권 영향의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6)의 예문과 같이 'estar + 현재분사' 형식에 시제부사 'ya'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ya estar + 현재분사' 현상은 절박한 명령이나 확인하기 위한 강조적인 명령으로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형식이며, Kany[10] (1994)는 옛 스페인 안달루시아 방언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Bueno, ya me la estáis pagando [= pagádmela]; Pues ya estás yevándolas [= llévalas] al río' 등의 표현들이 있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영향이 중남미에 미쳤다는 학설이다. 특히 멕시코 등의 중미지역 뿐만 아니라 남미 께추아언어권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끔 7)의 예문과 같이 'ir' 동사와 함께 표현되는 'ya ir + 현재분사' 형식과 8)의 예문과 같이 시제부사 'ya'와 'mismo'를 동반하여 강한 강조적인 인상을 주는 명령형도 발견된다.

Ya están saliendo.
Ya estás comiendo.
Ya mismito les estás escribiendo.
Ya te vas largando.
Y si le sale mal el negocio, *ya mismo* recoge sus cacharpas y se nos está yendo.

위에서 언급한 스페인어에 있어서 시제부사 'ya'는 공교롭게도 께추아어의 시제부사 'ña'와 유사한 발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Holguín (1607, p.122)의 께추아문법서에 의하면 "(ña)는 ya 혹은

10) Charles E. Kany, *Sintaxis hispanoamericana*, Madrid, Gredos, 1994. P. 306.

ahora, 혹은 al presente"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Santo Tomás (1560 pp.37-71) 의 께추아문법서에서도 현재형과 같이 과거형과 미래형 동사에 'ña'를 덧붙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과거시제 완료형에 'ña', 미래시제 완료형에 '-hx'를 첨가한 'ña-hx'의 접사를 사용하여 소개했다.

> Puede se añadir al principio de cada persona de las dichas en esta última terminación inmediatamente dicha, este adverbio 'ña'. (p.63)
> Este pretérito perfecto se puede hacer como el presente de este modo, añadiendo a las personas del a principio este adverbio 'ña'. (p.40)

ña carcani
[= yo había sido]
ña-hx caymáncha
[= yo habré sido]

Cerrón-Palomino[11] (1987)는 ña가 스페인어에서 차용된 것이 아니고 원시께추아어에서 유래한 고유의 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시제부사 'ya'는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ya estar + 현재분사'의 표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흔히 사용됨을 발견할 수 있다.

¡Te largas *ya mismo* de mi casa!
Desde ya me obligo.
Si se decide *es ya*.
Ya me cambió nombre *ya*.
¡Tené cuidado que te van a hacer sonar! - ¡*Sí, ya*!

중남미에서 시제부사 'ya'는 위의 예문들과 같이 'ya mismo', 'desde ya', 'es ya', 'yaya', 'sí, ya'등의 표현들로 긍정문, 부정문, 명령문, 의문문 등에 상관없이 사용된다. 일부 학설에 의하면 'ya'와 포르투칼의

11) Rodolfo Cerrn Palomino, *Lingüstica quechua*, Lima, Centro de Estudios Rurales Andinos, Bartolom de las Casas, 1987, p.212.

'já'와 유사성을 들어 포르투칼어의 영향으로 보는 주장도 있으며 특히 'yaya'의 반복형식에 대하여 'jam jam'의 라틴어 반복법에 의한 영향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께추아의 부사 'ña'는 서어의 'ya'와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Palomino (1976)의 께추아문법서[12]에서 'ña'는 "강조적인 표현을 나타날 때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접사로 스페인어의 'ya'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접사 'ña'는 께추아어권 대부분의 방언지역에도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라면서 페루 Ayacuho지방의 방언과 Chanca방언의 Soto Ruiz (1976, p.128)의 께추아문법서, Junín과 Huanca방언의 Cerrón Palomino (1976, p.2025), Cuzco와 Collao방언의 Antonio Cusihuaman (1976, p.260), 볼리비아의 Cochabamba와 Oruro 방언의 Gómez와 Arévalo (1988, p.113)의 문법서에서 예문들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Qam-*ña* mikuy.
[= Come tú *ya*.]
Arí, ña, mikurunku-ña.
[= *Sí, ya*, comieron *ya*.]

-Ayacucho와 Chanca지방의 께추아어-
(qam: tú, mikuy: come, mikurunku: comienron arí: sí)

ña-m likun-*ña*.
[= *Ya* se fue *ya*.]
ña-m waalaqlusha-*ña*.
[= *Ya* de mañana *es ya*.]

-Junín과 Huanca지방의 께추아어-
(likun: fue, waalaqlusha: mañana es)

ña-chu makiyki-ta maqchikuranki-*ña*?
[= ¿Ya te lavaste las manos ya?]
ña-chá papa-qa poqorun-*ña*!

12) Rodolfo Cerrn-Palomino, *Gramática quechua: Junn-Huanca*, Lima, Ministerio de Educaci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p.225.

[= ¡*Ya* habrá madurado la patata *ya*!]

-Cuzco와 Collao지방의 께추아어-

(makiyki: manos, maqchikuranki: lavaste, papa: patata, poqorun: madurado)

ña jamusan-*ña*.
[= *Ya* está viniendo *ya*.]
ñuqa mana-*ña* jamusax-chu.
[= Yo *ya* no vendré.]

-Cochabmba와 Oruro지방의 께추아어-

(jamusan: viene, ñuqa: yo, mana: no, jamusax: vendré)

위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중남미스페인어의 시제부사 'ya'와 함께 하는 표현는 적어도 께추아어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9)번의 예문과 같이 중남미 전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어체로서 'ser' 동사의 현재분사형 'siendo'와 함께 사용되는 'estar + 현재분사 *siendo* + 과거분사' 형식도 께추야 현재분사 특성의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l puerto *está siendo* bombardeado.
Estoy siendo menospreciada por mi esposo.
Estaba siendo vencido por dos enemigos terribles.
Mi padre *está siendo* visitado con frecuencia.

같은 형식으로 10)의 예문처럼 'ser'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ser + 현재분사 *siendo* + 과거분사' 형식의 표현도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다.

Las obras *fueron siendo* llamadas sucesivamente.

'Ser'동사의 현재분사형 'siendo'와 함께 'estar 혹은 ser + siendo + 과거분사' 형식인 'El puerto está siendo bombardeado' 식의 표현에서 'ser 혹은 estar + 과거분사'의 수동적 형식으로 'El puerto está bombardeado' 혹은 'El puerto es bombardeado'의 의미를 뜻하지만

'ser' 동사의 현재분사형 *'siendo'*를 과거분사 앞에 삽입함으로써 'Está bombardeando el puerto' 혹은 'se sigue bombardeando el puerto'와 같은 능동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과정이나 방법을 연상시켜 주는 심리적 표현으로, 이러한 현상 역시 16세기 스페인어의 영향에 의한 의고주의(arcaísmo)로 해석되거나 또는 영문법에 의한 영향(anglicismo)이라는 학설도 제시되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스페인어와 영어의 영향과는 관계없이 께추야 현재분사의 언어적 특성에 있어서 이러한 수동적 표현은 과거분사형과 연사동사의 현재분사형인 '-spa'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16세기 Santo Tomás(1560)의 께추아문법서에 잘 나타나 있다.

> en la lengua latina tiene la significación activa arriba dicha juntamente con la pasiva, mas en esta lengua no, sino que se ha de hacer por circunloquio del participio pretérito pasivo del mismo verbo y el mismo gerundio de ablativo del verbo, (sum, es, fui) lo cual es así mismo en la lengua española. v. g. 'siendo amado', decimos (coyasca caspa) y rige ante si nominativo según y como esta dicho del mismo en la significación activa. (p.90)

이미 설명하였듯이 께추아어의 문법에서는 현재분사형 'spa'는 접사로서 명사로 취급되지만 우리 국어에 비유한다면 불완전명사에 해당되며,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께추아어의 예문 'coya-sca ca-spa'(coya-sca: amado, ca-spa: estar siendo혹은 ser siendo)와 같은 표현은 언어상호접촉에 의해서 'estar siendo amado' 혹은 'ser siendo amado' 따위의 표현들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께추아의 과거분사형은 '-sca' 혹은 '-sqa', '-shca', '-shqa', '-shka' 등으로 표시하며 명사화를 이루기 위한 환경조사(sufijo ambivalente)로서 현재분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하여 Santo Tomás(1560)는 스페인어에서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용법 중 하나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 es una muy elegante manera de hablar por este participio y el dicho

verbo, como latin () lo qual en la lengua española no tiene aquella gracia ni se dice tan congruamente. (p.82)

이 밖에도 Huerta(1616, p.76)와 Juan de Aguilar[13](1690, p.57)의 고전 께추아문법서도 '-sca'는 스페인어에 있어서 과거분사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González Holguín(1607, p.61)의 문법서에서는 3종류의 과거분사를 설명하면서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에 사용되는 접사 '-sca'를 소개한다.

De los participios del verbo activo que son tres uno Activo, y dos pasivos. Participio activo de todos tres tiempos presente y pretérito y futuro, y de todas tres personas (munac) Participio pasivo de presente y de pretérito (munas*ca*) Participio pasivo de futuro (muna*na*)

위의 예문에서 밝힌 께추아어의 고전문법서와 같이 현대문법서들에서도 '-shqa'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 현재형과 과거형을 나타내고, '-na'는 미래형의 분사로서 사용되며 특히 '-shqa'의 과거형은 스페인어의 과거분사형과 유사하다. 이러한 내용을 Quesada[14] (1976)가 다음과 같이 대변한다.

Cuando se añade a una raíz verbal, este sufijo refiere la acción como 'estado completo'; si se añade al objeto o al lugar de la acción por el hecho de presentar el resultado de la acción- el significado de este sufijo es semejante al del *participio pasado* en las lenguas indoeuropeas como en el español, en fránces, etc. (p.102)

이러한 용법에 의한 영향으로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Henríquez Ureña[15](1940)가 제시한 11)의 예문과 같이 과거분사형과 현재분사형이

13) Juan de Aguilar (1690), *Arte de la lengua Quichua general de Indios del Peru*, Instituto de Antropologa,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Argentina, 1939.

14) Flix Quesada, *Gramática quechua: Cajamarca-Cañaris*, Lima, Ministerio de Educaci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p.102.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께추아언어권 지역의 스페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Después de tú *ido* en yo *llegando*!

과거분사 '-shqa'는 각 지역의 방언들에 상관없이 동일성을 보이며 대표적인 예로 Quesada(1976, p.102)의Cajamarca지방과 Cañaris지방의 께추아문법서, San Martín지방의 Coombs와 Weber(1976, p.98)의 문법서, Cusihuaman(1976, p.225)의 Cuzco와 Collao지방의 문법서에서 께추아의 과거분사 특성이 나타나는 예문들을 발췌해 보았다.

가) Yatranim miku-*shqa*-n-ta.
(Yatranim: sé, miku-: comer, miku-shqa-n: Vd. comido, -ta: lo)
-Cajamarca와 Cañaris 지방의 께추아어-

나) Niway rima-*shka*-nta.
(niway: dime, rima-: hablar, rima-shka-n: Vd. hablado)
-San Martín 지방의 께추아어-

다) Aman yacha-*sqa*-yki-ta qonqankichu.
(Aman: no, yacha-: aprender, yacha-sqa-yki: tú aprendido, qonqankichu: olvidarte)
-Cuzco와 Collao 지방의 께추아어-

중남미스페인어에서 11)의 예문 'Después de tú ido yo en llegando'을 통해 과거분사의 변천과정을 'después de que tú has ido > después de *tú ido*'로 볼 수 있다면 위에서 보여준 께추아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 Yo sé lo que ha comido > Yo sé *Vd. comido* 나) Dime lo que habló > Dime

15) Pedro Henrquez Ureña, *El español en Santo Domingo*, Buenos Aires, Biblioteca de Dialectologa Hispanoamericana, Vol 5, 1940, p.230.

Vd. hablado 다) No vas a olvidarte que has aprendido > No vas a olvidarte *tú aprendido.* 결국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과거분사와 현재분사가 함께 어울려 사용하는 현상은 적어도 께추아언어권에서는 과거분사형 '-shqa'와 현재분사형 '-shpa'를 첨가함으로써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께추아어의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또 한편, Toscano[16] (1953)가 소개한 12)의 예문과 같이 께추아언어권의 스페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에 접미사를 첨가하여 'calland-ito; pasand-ito' 혹은 'callad-ito; pasad-ito'로 표현하는 식의 이질현상도 께추아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속성에 의해 발생되는 언어상호접촉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2. '보조동사 + 현재분사'

일반적으로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현재분사와 함께 명령형을 사용하는 현상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dar + 현재분사'와 'ir + 현재분사'의 표현들이다. 먼저 예문의 13)과 같은 'dar + 현재분사'의 형식은 정중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께추아어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Dame haciendo mi trabajo.
Deles pasando el cafecito.
Dámelo llevando.

이런 식의 표현은 이중언어사용자들인 인디오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대도시에서도 일반화된 것으로 'dame llevando = llévamelo, dame

16) Humberto Toscano Mateus, *El español en el Ecuador*,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ficas, 1953, p.276.

escribiendo = escribe, dame hablando a mi favor = habla a mi favor, dame leyendo = leéme'처럼 예의를 지키기 위한 명령에 사용되며 특히 에콰도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Vázquez[17] (1940)는 아래 예문과 같이 께추아어의 '현재분사 + cu-y(=dar)' 구조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표현이라고 암시한다.

Apumu-shpa cu-y.
[= Da trayendo.]
(apumu: traer, cu: dar, -y: 제 2인칭 명령형어미)

위와 같은 Vázquez의 의견에 Kany (1994, p.196), Toscano(1953, p.284) 등도 동의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부연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간단히 'cu-na' 동사의 쓰임에 대하여 소개해 본다. 일반적으로 께추아어에서는 'cu-na(= dar)' 동사는 보조동사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usihuaman(1976, p.156)의 께추아문법서가 스페인어와 비교하여 께추아어의 'dar(= cu-na)' 동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스페인어에 있어서 -나는 배고프다(= Tengo hambre)-등의 표현은 께추아어에서는 보조동사 'dar'를 사용하여 -내게 배고픔을 준다(Me da hambre)-식의 방법 밖에는 없다'라고 서술한 바와 같이 께추아어의 'cu-na(= dar)' 동사는 특수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Catta(1987, p.173)의 께추아문법서는 현재분사형 'shpa'가 자동사와 근접하여 있을 때 현재분사는 주어의 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동사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오직 보조동사로서만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타동사일 때 현재분사 '-shpa'는 스페인어의 경우에 주동사로서 해석되지만 께추아어에서는 보조동사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2 가지 쓰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Si un gerundio SHPA es seguido inmediatamente por un verbo

17) Honorato Vázquez, *Reparos sobre nuestro lenguaje usual*, Quito, 1940, p.127.

desprovisto de complemento, este gerundio se presenta como el atributo del sujeto; el verbo interviene solamente a título de auxiliar.

Cuando el verbo presenta un complemento que revela ser el complemento de la misma forma gerundial SHPA. En la traducción al castellano, el gerundio SHPA pasa a ser el verbo principal; en cuanto al matiz proporcionado por el verbo-auxiliar, se intentará traducirlo.

위의 사실로 본다면 안데스 지방의 스페인어에 있어서 이러한 'dar'동사를 보조동사로 취급하여 사용하는 'dar + 현재분사'의 형식은 께추아어의 영향으로 재확인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께추아어에 있어서 'cu-na(=dar)'동사는 명령형 'cu-y' 뿐만 아니라 시제에 상관없이 긍정문, 부정문 등 모든 문장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역시 안데스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예문 14)와 같은 'Pedro me dió componiendo mi reloj(= Pedro compuso mi reloj)', 'Pedro me dió dañando mi reloj(= Pedro ha dañado mi reloj)' 등의 표현도 가능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남미스페인어에서 현재분사의 변이현상의 하나로 예문 15)와 같은 'ir + 현재분사' 형식도 자주 나타난다. Lorenzo[18] (1971)는 동의를 청하는 명령형이나 즉시 실행을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사용된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현상을 Luna(1975, p.406)는 멕시코에서 일반화된 구어체인 지역적인(regionalismo) 방언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안데스의 스페인어권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표현이다.

¡*Vamos haciendo* una fiesta!
Vete cerrando las puertas.

께추아어의 'dar'동사 이외에도 몇몇 동사들이 보조동사로서 사용되는데 크게 나누어 '존재나 능력을 부여하는 동사들', '움직임을 나타내는

18) Emilio Lorenzo, *El español de hoy, lengua en ebullicin*, Madrir, Gredos, 1971, p.89.

동사들', '위치에 관계되는 동사들'이 현재분사를 동반하는 보조동사로 쓰인다. 에콰도르 스페인어에서 현재분사의 이질현상이 많이 발견되므로 이 지역 께추아방언을 중심으로 발췌한 동사들을 아래에 열거하였다.

<<자동사>>
ushana (poder), tucuna (volverse), callarina (empezar), cana (ser), causana (vivir), cainana (pasar el tiempo), catina (seguir), tucurina (acabarse), shamuna (venir), rina (ir), purina (andar), callpana (correr), llucshina (salir,), shitarina (botarse), urmana (caer), cuna (dar), runana (hacer), tiyana (estar), saquirina (quedarse), sirina (estar echado), cungurina (ponerse de rodillas), shayarina (pararse), etc.

<<타동사>>
cuna (dar), rurana (hacer), tucuchina (acabar), shitana (botar), jichuna (abandonar), saquina (dejar), cachana (enviar), churana (poner), charina (tener, mantener), shayana (parar), etc.

께추아의 방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위에 열거한 동사들은 경우에 따라 보조동사로 대치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동사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본다면 'ir + 현재분사' 형식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동사들도 중남미스페인어의 현재분사 변이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예로 예문 16)번과 같이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dejar + 현재분사' 형식인 'dejarás apagando el fuego', 'dejarásme dando el dinero' 등의 표현에서 'dejar' 동사는 보조동사로서 아무런 뜻을 가지지 못하여 'apaga el fuego'; 'dame el dinero'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apagar', 'dar'등의 현재분사형에 'dejar'동사를 삽입함으로써 보다 더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주로 에콰도르의 인디오들에게서 비롯하여 현재는 전지역에 보편화된 표현이다. 이러한 보조동사로서의 표현들은 시제에 상관없이 명령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poner + 현재분사' 형식과 'botar + 현재분사' 형식도 유사한 범주에 해당한다.

Curumata *jundachi-sha*[19](*shpa*) *churanacurca.*
[= *Pusieron llenando* de los gusanos.]
(curu-ma-ta: de los gusanos, jundachi-: llenar, churanacurca: pusieron)

Maipipish canta japishpaca, *huañuchi-shpa shitashun.*
[= Donde sea te cogeremos y *botaremos matándote.*]
(maipipish: dondequiera, can-ta: te 혹은 a ti, jajpishpaca: cogeremos, huañuchi-: matar, shitashun: botaremos)

위에 소개한 께추아어의 예문들에서 살펴보았듯이 'churana (=llenar)' 혹은 'shitana (=botar)'는 보조동사로서 현재분사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와는 다른 께추아어의 매력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께추아어의 특성이 안데스스페인어에 적용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의 'poner'동사를 삽입한 'El puso rompiendo la olla' 같은 표현에서 실제로 'poner' 동사는 아무런 독자적인 고유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다만 'romper' 동사의 보조동사로서 '= El rompió la olla'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romper' 동사의 현재분사형에 'poner' 동사를 삽입함으로써 확실한 상태를 재확인해 주는 결과를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표현으로 18)의 예문 'Les botan avisando a los amigos (= Les avisan a los amigos)' 등의 표현도 역시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안데스스페인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botar' 동사는 'tirar', 'echar' 혹은 'arrojar'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botar' 동사는 문법적으로 오직 보조동사로서 사용되지만 의미적으로는 'avisar'의 현재분사형의 행위를 구체화시키려는 동일한 심리적 의지임을 느낄 수 있다.

19) 에콰도르 일부지역의 께추아방언에서는 현재분사 접사 '-shpa'를 '-sha' 혹은 '-sh'로도 사용한다.

3. 3. 'Venir + 현재분사'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에서 'venir + 현재분사' 형식은 동사의 행위에 대한 방법을 언급하여 '하면서 온다(간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19)의 예문과 같은 'vengo comiendo'의 특수한 표현도 존재한다. 주로 콜롬비아 남부지역과 에콰도르 전지역의 이중언어사용자인 인디오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단일언어사용자들에게까지 널리 확대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이미 끝내버린 결과를 알리는 'he hecho', 'acabar de' 혹은 'después de' 등의 의미로 Moya[20](1993)는 19)의 예문에서 'comer' 현재분사를 'venir' 동사가 행해지기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로 보아 'Vengo después de comer' 혹은 'Comí antes de venir'로 해석한다.

> en realidad, en el castellano serrano no solo de los bilingües sino también de los monolingües hispanohablantes ha dado lugar a construcciones como:
> *Vengo comiendo* que en rigor significa que la acción de *comer* no ocurre mientras *vengo* sino que precedió a la acción de *venir*. (p.108)

위와 같은 표현을 께추아어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서 Paris (1892)의 에콰도르 께추아문법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Paris는 스페인어의 현재분사와 께추아어의 '-shpa'는 서로 공통된 특성은 있으나 가끔 'después de'의 뜻으로 사용되는 특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designan no solamente simultaneidad de acciones, sino también *posterioridad*, a diferencia del castellano, come en: *Micushpa shamurcani*, me vine después de comer [lit. *comiendo vine*]. (p.36)

---

20) Ruth Moya, "Notas comparativas sobre la gramática", en *Gramática de la lengua quichua* de Julio Paris, Quito, Proyecto Educacin Bilingües Intercultural, Editora Nacional, 1993, p.108.

위의 Paris의 예문과 같이 그 밖의 다른 께추아문법서에서도 'venir + comiendo'와 같은 오용현상은 시제에 관계없이 '하고 온다' 혹은 '하고 왔다' 등의 행위의 완료를 알리는 표현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Micu-*shpa* shamu-ni.
'Vengo después de comer.'
[= Vengo comiendo.]

Micu-*shpa*-mi shamu-rca.
'Vino habiendo comido'
[= Vino comiendo.]

(micu-: comer, shamu-: venir)

3. 4. 'Mandar + 현재분사'

간접화법으로서 'mandar' 동사를 첨가하여 이루어진 'mandar + 현재분사' 형식은 안데스 지역에서는 주로 간접화법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실제로 문맥에 따라 'mandar' 동사는 여러가지 동사로 대치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예문 20)과 같이 'Me mandó sacando mi patrón' 등의 문장에서 Toscano (1953, p.285)는 'despedir'동사 혹은 'echar'동사로 대치하여 'Me despidió mi patrón'라고 풀이하였지만 결국 이것은 'ordenar', 'obligar' 혹은 'decir'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Mi patrón me ordenó que me renunciara'처럼 같은 의미로 귀결되는 간접화법의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원래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mandar'동사는 언어습득 당시부터 피지배자들인 인디오들에게는 계급언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러한 표현이 안데스스페인어에서나 혹은 께추아의 표현에서나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간접적인 명령을 할 때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Les mandé regresando con viento fresco.
[= Les ordené que regresaran con viento fresco.]

El señor manda diciendo que vengas.
[= El señor dice que vengas.]

Mi taita me mandó hablando.
[= Mi padre me obligó a hablar.]

이미 이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께추아어의 'mandar + 현재분사'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듯이 께추아어에서 'cachana'동사는 서어의 'mandar' 혹은 'enviar'의 의미로 특수한 보조동사로서 취급된다. 그 예로 Paris(1892)의 께추아어 사전에서는 'cachana'동사가 대부분의 경우 문장 뒤에서 명령형으로 다른 동사의 현재분사형과 함께 사용된다고 명시했다.

Este verbo se pospone a menudo al imperativo presente al participio presente de otros verbos. (p.124)

마찬가지로Cordero[21] (1895, p.12)도 'cachana'는 보조동사로서 주로 다른 동사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용법을 가진 동사임을 인정한다. 실제로 께추아어의 'mandar + 현재분사'의 형식은 적어도 에콰도르 방언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문을 Catta(1987)의 문법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Paita llucshichi-*shpa cacharca.* (p.174)
[= Lo *mandó sacando.*]

Tandata rura-*shpa cacharca.* (p.173)
[= *Mandó haciendo* el pan.]

---

21) Luis Cordero (1895), *Diccionario Quichua-Castellano y Castellano-Quichua*, Quito, PEBI, Editora Nacional, 1992, p.12.

위의 께추아어의 예문을 통하여 안데스스페인어에 있어서 께추아어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Toscano(1953, p.285)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변이현상은 단일언어사용자인 도시의 지식층에서는 'mandar sacando' 등으로 나타나지만 이중언어사용자인 인디오들에게서는 'sacando mandó', 'hablando mandó' 혹은 'pegando mandó' 등의 표현들로 발견된다는 주장도,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께추아의 어순을 그대로 모방한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3. 5. 습관적 현재분사

께추아어의 직접화법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현재분사를 동반하여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문장마다 습관처럼 스페인어의 'decir'동사의 현재분사형 즉 'diciendo'에 해당하는 'ni-shpa'를 덧붙여 표현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습관적인 'ni-shpa'의 사용은 모든 께추아어권 지역인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의 방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다음에 소개한 예는 Coombs와 Weber (1976, p.177)의 San Martín지역의 께추아문법서에서 뽑은 'ni-shpa'의 남용현상이다.

— Bueno entonces chashna-pi-ka, compadre, —*ni-shpa* will-ca-ni.
[= Bueno entonces así es, compadre, —*diciendo* dije.]
— Bueno, —*ni-shpa* willa-rka-n.
[= Bueno, —*diciendo* dijo.]
— Pata masa-n-kuna tiya-n, —*ni-shpa* rima-rka-n.
[= Tal vez tiene sus compañeros, —*diciendo* habló.]

이러한 께추아어의 현재분사 'ni-shpa' 사용의 습관은 중남미스페인어에 미칠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보여진다. 그 예로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21)의 예문에서의 현재분사 'diciendo'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께추아언어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Rocha(1986, p.32), Mendoza(1988, p.216), Stark(1970, p.8), Escobar (1978, p.109) 등에 의해서 소개되었으며 Lipski(1994, p.348)와

Toscano(1953, p.285)는 주로 직접화법에서 나타나는 께추아어의 영향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 No se dónde está mi marido, *diciendo.*
> Entonces sale una señora. Qué cosa, *diciendo.*
> Hazme descansar *diciendo.*

위의 예문과 같이 께추아어의 직접화법에 있어서 'ni- (=decir)'동사는 같은 동의어 willa- (=decir, hablar)', 'rima- (=hablar, decir)'동사를 동반할지라도 현재분사 'ni-shpa (decir)'를 첨가하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께추아어의 특성은 직접화법에서 뿐만 아니라 간접명령에도 나타날 수 있다. Grimm (1896)의 에콰도르 께추아문법서[22]는 'ni-shp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간접명령의 용법을 보여준다.

> Caita apamui *ni-shpa* camachirca.
> [= Esto trae *diciendo* mandó.]
> (Caita: esto, apamui: trae, camachirca: mandó)

습관적인 'diciendo' 사용의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분사 'diciendo'는 의문사 'qué'와 함께 사용하여 'por qué' 혹은 'con qué razón' 등의 뜻으로 22)의 예문과 같이 'qué diciendo?' 혹은 'qué haciendo?의 표현으로 중남미스페인어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주로 행위에 대한 부정을 암시하는 감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대하여 Cavada[23] (1914)는 칠로에(Chiloé)의 마푸체(mapuche)영향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Kany (1994, p.285), Toscano (1953, 274) 등은 께추아어의 영향에 의한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22) Juan Grimm, *La lengua Quichua*, B. Herder Librero-Editor Pontificio, Alemania, 1896, p.26.

23) J. Francisco Cavada, *Chilo y los chilotes*, Santiago de Chile, Imprenta Universitaria, 1914, p.282.

Ima ni-shpa?
[= *¿Qué diciendo?*]
Ima rura-shpa?
[= *¿Qué haciendo?*]

이밖에도 습관적인 현재분사의 표현들 중에 예문 23)과 같이 부사 'siempre'를 동반하는 '¡Siempre loqueando!' 등의 감탄문을, Rojas[24] (1980)는 께추아언어권인 아르헨티나의 Tucumán에서 습관적인 행동이나 고집 따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역시 께추아어에서도 부사 'siempre'는 방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사 '-puni'로 사용되는데, 수식하고자 하는 동사나 명사 혹은 인칭대명사 등에 접미하여 사용한다. Cusihuaman (1976)의 께추아문법서[25]는 습관적으로 항상 어김없이 일어나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날 때 이 '-puni'를 사용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 Indica que dicho elemento participa en el evento en forma definitiva, puntual o infalible, frecuente, o habitual. (p.256)

이 접사 '-puni'는 감탄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다음에 소개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결국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ciertamente, usualmente, siempre, de costumbre, habitualmente, todavía, aún, puntualmente, definitivamente, dedicamente, resueltamente, bastante, con toda seguridad, de todas maneras, sin excepción, etc.

---

24) M. Elena Rojas, *Aspectos del habla en San Miguel de Tucumán*, Tucumán,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Facultad de Filosofa y Letra, 1980, p.169.

25) Antonio Cusihuaman, *Gramática Quechua: Cuzco-Collao*, Lima, Ministerio de Educaci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p.256.

실제로 안데스스페인어에서 'siempre + 현재분사' 형식 뿐만 아니라 이러한 '-puni'의 기능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들어 Kany (1994, p.382)는 부사 'siempre'를 동반하여 습관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Te vas a la madrugada, *¿siempre*?
¿Tú *siempre* queriéndola?
Siempre mismo me quedado debiendo ese resto.
Yo *siempre mismo* tengo que irme.

위에서 본대로 중남미스페인어에서 부사 'siempre'에 가끔 'mismo'를 동반하여 사용하는 표현도 습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Cusihuaman(1976, p.257)는 접사 '-puni'는 크게 2가지 'siempre'와 'mismo'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puni'를 사용하여 습관적인 표현을 한 문장들을 Cusihuaman(1976), Gómez와 Arévalo (1988)의 께추아문법서에서 발췌했다.

Mayu killapiqa qasamun-*puni*-n.
[= En mayo *siempre* cae helado.]
Manachus Wasaparuyman-*puni* kay llankasqaytari?
[= ¿Por qué *siempre* no podría concluirlo este trabajo?]
Sapa wata-*puni* jamuni.
[= *Siempre* vengo cada año.]
Ama-*puni* ujyaychu.
[= No *siempre* bebas.]
Nuqa-*puni* rantix rini.
[= Yo *siempre mismo* he ido a sembrar.]

이밖에도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으로 예문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Rojas (1980, p.169)와 에콰도르의 Toscano (1953, p.338) 등이 소개한 현재분사 반복현상인 '현재분사 + (y) + 현재분사' 형식이 있다.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현재분사의 반복현상은 일반적으

로 같은 현재분사형이 중복하여 사용되는 'viendo viendo' 등의 표현과 16세기 스페인어에서도 드물게 발견되었던 서로 다른 동사들의 현재분사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estando comiendo', 'viniendo buscando' 등의 표현들로 구분할 수 있다.

Viendo viendo hay que caminar.
El perro regresó a la casa *oliendo oliendo.*
El mayordomo se incorporó y se quedó *chapando chapando.*
Estoy cansada de verla *llorando y llorando* todo el día.
Andando yendo estudiarás la lección.

일반적으로 께추아어에서는 현재분사형 '-shpa' 뿐만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를 강조할 때도 연속 두번 반복함으로써 강조적인 표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께추아언어권의 서어에서 흔히 'muy grande'라는 표현을 'grande grande' 또는 'muy rápidamente'를 'rápido rápido'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현상도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이처럼 현재분사형이 강조적인 의미로 중복해서 사용되는 형식이나 옛 스페인어에서 드물게 발견된 것처럼 다른 현재분사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께추아어에서는 빈번히 나타나므로 당연한 께추아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Ricu-sh(shpa) rucu-shpa-lla shamu-y.
[= *viendo viendo* ven.]
Trampata capulis yurapi *llutachi-shpa saqui-shpa* rirca.
[= *Dejando pegando* la trampa a un árbol de capulí se fue.]

맺는말

중남미스페인어에 있어서 현재분사 변이현상을 일반적으로 의고주의(arcaísmo)와 지역주의(regionalismo) 그리고 토어주의(indigenismo)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그 중 본고는 안데스언어권의 께추아어를 중심으로 토어주의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해 보았다. 토어주의의 영향은 크게 16세기 스페인어와의 상호접촉으로 발생된 간접적 영향과 독자적인 토착어의 구조를 스페인어에 적용시킨 직접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께추아어의 현재분사는 일반적으로 스페인어와 같이 '-shpa'를 동사에 접미하여 사용하는데, 조사로 사용하지만 명사로 취급하며 시간성보다는 행위에 대한 심리적 방법, 즉 공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16세기 스페인어와 중남미스페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의고주의적 표현으로 간접적 토어주의의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들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sum'동사에 해당하는 연사동사(copulativo)인 'ser'와 'estar' 혹은 'ir'동사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대부분의 현상들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Estar'동사가 현재분사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일반적인 동사표현을 대치하는 현상, 'ir', 'ser' 혹은 'venir' 등의 동사와 현재분사형 'yendo'가 어울려 'ir'에 대한 진행행위를 강조하는 현상, 'estar'동사와 현재분사를 사용하여 'aún' 혹은 'todavía'의 의미를 연상케하는 현상, 'ir'동사와 현재분사가 사용되어 'acabar de '의 뜻으로 표현되는 현상, 부정부사 'no'와 'estar'동사를 사용한 'no estar + 현재분사'의 역설적 표현, 시제부사 'ya'를 동반하여 절박한 명령을 나타내는 'ya estar + 현재분사', 'ya ir + 현재분사', 그밖에 부사 'mismo'를 첨가한 'ya mismo + 현재분사'의 형식, 수동적인 형식인 'estar, ser + siendo + 과거분사'가 능동적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토착어의 언어 속성에 의한 직접적인 토어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는 과거분사와 현재분사가 어울려 사용되는 현상,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에 축소접미사를 접목하여 겸손 혹은 예의나 조롱 따위를 표현하는 현상; 보조동사로서 'dar'동사와 현재분사를 정중한 명령으로 사용하는 현상, 시제와 관계없이 보조동사 'dar + 현재분사'로 쓰는 형식, 간청하는 의미로 'ir'동사를 보조동사로 취급하여 현재분사와 함께 사용하

는 현상, 보조동사화한 'dejar', 'poner', 'botar' 등과 현재분사가 어울려 사용되는 표현, 'he hecho' 혹은 'acabar de hacer' 등의 의미로 표현하는 'venir + 현재분사' 형식, 간접화법의 표현으로 'mandar'동사가 현재분사와 함께 보조동사로 취급되는 현상, 습관적인 현상으로 'diciendo', '¿qué diciendo?' 혹은 '¿qué haciendo?' 등의 표현, 부사 'siempre'와 현재분사를 함께 써서 확고한 주장과 고집 따위를 재확인하는 습관적 표현, 동작의 연속을 강조하기 위한 현재분사의 반복현상 등이 있다.

참고문헌

Aguilar, Juan de (1690), *Arte de la lengua Quichua general de Indios del Peru*, Instituto de Antropología,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Tucumán, 1936.

Caravedo, Rocío, "Espacio geográfico y modalidades en el español del Perú", C. Hernández (ed.), *Historia y presente del español de América*, Valladolid: Junta de Castilla y León, 1992, pp.719-742.

Catta Quelen, P. Javier, *Gramática del quichua ecuatoriano*, Quito: Abya-Yala, 1987.

Cavada, Francisco J., *Chiloé y los chilotes*, Santiago: Imprenta Universitaria, 1914.

Cerrón Palomino, Rodolfo, *Gramática quechua: Junín-Huanca*,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Cerrón Palomino, Rodolfo, *Lingüística quechua*, Lima, Centro de Estudios Rur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1987.

Coombs, David, Heidi Coombs y Robert Weber, *Gramática quechua*

San Martín,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Cordero, Luis, *Diccionario Quichua-Castellano y Castellano-Quichua* (1895), Quito: Editorial Nacional, 1992.

Cusihuaman, Antonio, *Gramática quechua: Cuzco-Collao*, L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Escobar, Alberto, *Variaciones sociolingüísticas del castellano en el Perú*,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8.

Fernández, Salvador, "Algo sobre la fórmula *estar* + gerundio", *Estudia Philológica*, Madrid: 1960, pp.509-516.

Gómez Bacarreza, Donato, Fabiana Arévalo Soto, *Morfología del idioma quechua*, La Paz, Icthus, 1988.

Grimm, Juan, *La lengua Quichua*, Alemania: B. Herder Librero-editor Pontificio, 1896.

Henríquez Ureña, Pedro, *El español en Santo Domingo*, vol. 5, Buenos Aires: Biblioteca de Dialectología Hispanoamericana, 1940.

Huerta, Alonso de (1616), *Arte de la lengua qvechua general de los Yndios de este Reynos del Piru*, Lima, Proyecto Educación Bilingües Intercultural, Quito, Editora Nacional, 1993.

Icaza, Jorge, *Huasipungo*, Lautaro, Buenos Aires, 1948.

Kany, Charles E., *Sintaxis hispanoamericano* (1945), Madrid: Gredos, 1994.

Lee, Tae Yoon, *Morfosintaxis amerindias en el espñol americano*,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Ediciones Clásicas-Edición del Orto,

Madrid, 1997.

Lipski, John M.,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Cátedra, 1996.

Lope Blanch, Juan M., "Estado actual del español en México", *Presente y futuro de la lengua española, I*, Madrid: Oficina Internacional de Información y Observación del Español, 1964.

Lorenzo, Emilio, *El español de hoy, lengua en ebullición*, Madrid: Gredos, 1971.

Luna Traill, Elizabeth, "Perífrasis de gerundio en el habla culta de la ciudad de México", *Lingüística y Educación: Actas del IV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lFAL*,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1975, pp.401-409.

Mendoza, José G., *Caracterización morfosintáctica del castellano paceño*, La Paz: Universidad Mayor de San Andrés, 1988.

Paris, Julio, *Gramática de la lengua quichua actualmente en uso entre los indígenas del Ecuador*(1892), Quito: Proyecto Educación Biligües Intercultural, Editora Nacional, 1993.

Quesada, Félix, *Gramática quechua: Cajamarca-Cañaris*,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Rojas, Elena M., *Aspecto del habla en San Miguel de Tucumán*, Tucumán: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1980.

Santo Tomás, Domingo, *Grammatica o Arte de la lengua generales de los Indios de los Reynos del Peru* (1560), Quito: Proyecto Educación Bilingüe Internacional, Editora Nacional, 1992.

Soto Ruiz, Clodoaldo, *Gramática quechua: Ayacucho-Chanca*, Lima,

Ministerio de Educación,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1976.

Stark, Donaldo, *Aspectos gramaticales del español hablado por los niños de Ayacucho*,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1970.

Toscano Mateus, Humberto, *El español en el Ecuador*,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1953.

Vaquero de Ramírez, María, *El español de América II, Morfosintaxis y Léxico*, Madrid: Arco Libros, 1996

Vázquez, Honorato, *Reparos sobre nuestro lenguaje usual*, Quito: Imprenta y Encuadernación Nacionales, 1940.

Varios fenómenos del uso del gerundio en el español americano

Lee Tae Yoon
(Dialectología, Español de América)

En este trabajo tratamos los fenómenos que afectan a los gerundios por la diferente índole idiomática que existe entre el español y los amerindias (especialmente quechua) cuando el español se adquiere como segunda lengua.

En el español de América los fenómenos anómalos que han ocurrido en las funciones del gerundio han sido estudiados en profundidad. Como explicación de estos fenómenos se ha recurrido, en algunas ocasiones, a la influencia implícita del sustrato de las lenguas aborigenas en el español americano, aunque la mayoría de ellos todavía se atribuyen a la influencia del español antiguo.

En el uso del gerundio del español americano podemos clasificar en tres tipos grandes: arcaísmo, regionalismo y indigenismo. Indigenismo es núcleo de nuestro trabajo, dentro de ello la influencia del amerindias puede dividirse en dos tipos: indirecta y directa. El primero de ellos está dedicado a cuestiones generales sobre la influencia indirecta del amerindia; la forma *'estar* + gerundio' en reemplazo de cualquier forma verbal del habla consagrada; la forma progresiva de *'ser* o *estar* + *siendo'* en construcciones pasivas; la locución *'ya* (*mismo*) *estar* o *ir* + gerundio' para expresar un mandato perentorio; la forma *'estar* + gerundio' con el sentido negativo; la forma *'ir* + gerundio del

mismo verbo'; el uso de *'ir* + gerundio' con el sentido *'acabar de* infinitivo'.

La segunda aborda las cuestiones principales de la influencia directa del gerundio del amerindia en el español de América: el uso del 'gerundio + participio pasado'; el uso 'el gerundio con diminutivo'; el uso de *'dar* + gerundio' como expresión imperativa; el uso de la forma *'dar* + gerundio' en otros tiempos; el uso de *'ir* + gerundio' con el valor imperativo; el uso de *'dejar* + gerundio' como el verbo auxiliar; la forma con el verbo auxiliar *'poner* + gerundio'; el uso de *'botar* + gerundio' con el sentido de *'tirar'*, *'echar'*, *'arrojar'*; la combinación *'venir* + gerundio' con el sentido de *'he hecho'*, *'acabo de hacer'*; la forma *'mandar* + gerundio' como el imperativo indirecto; el uso de *'diciendo'* como una construcción habitual; el uso de *'¿qué diciendo?'* o *'¿qué haciendo?'* con el significado de *'por qué'* o *'con qué razón'*; la forma *'siempre* + gerundio' con la indicación para expresar la insistencia en oraciones exclamativas; la repetición del gerundio 'gerundio + (*y*) + gerundio'.